현대·기아차 업계 최초 오늘부터 주간 2교대 근무

연간 근로시간 1인당 236시간 줄어
노사 생산능력 유지·임금 보전 합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포함, 현대·기아자동차가 4일부터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주간 2교대 근무에 들어간다. 40여 년을 지속한 밤샘근무를 없앤 것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동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3일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최종 합의한 뒤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무형태 변경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의 결실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 밤샘근무 폐지**=현대·기아차의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은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심야근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공장의 경우 1조는 오전 7시 출근, 오후 3시40분(점심시간 40분 포함)까지 8시간을 근무하며 2조는 오후 3시40분 출근, 다음날 새벽 1시40분(잔업 1시간 포함)까지 9시간을 근무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 30분으로 줄어든 형태로, 기존 근무는 주야 2교대(10시간+10시간), 심야까지 근무가 계속됐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근로자 개인당 평균 236시간(11%)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30일 기준이다.

시·종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조정하고 잔업을 하루(2개조 기준) 4시간에서 1시간 가량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밤샘근무 관행도 없앴다.

근로자들은 여가·가정생활 확대와 건강증진, 자기계발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실제로 현대차 노사가 지난 1월 2주간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생산직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기대했다.

◇**합리성 있는 생산능력 유지 합의안 실천**=현·기차 노사는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에도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있는 생산능력 유지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작업시간 확보 등으로 생산능력 유지에 협조했고, 사측은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해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광주공장 등 전 공장의 전체 시간당 생산속도를 30대(308.3대→338.3대) 상향시키고 일부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해 17만9000대의 생산능력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기로 했다. 현·기차 노사가 기존의 생산능력을 모두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부품 협력사들은 물량 감소 우려 없이 안정성 있는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노사간 논의를 벌여 일부 조율을 마치지 못한 휴일특근 등 세부사항들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심야근무 해소로 근로자 생활 만족도와 회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사가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담양 비타민하우스 2분기 태국시장 진출
32억원 규모 비타민 수출계약

담양에 공장을 가진 국내 건강기능식품 대표 기업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가 3일 태국 코치코스메드(KOCHY COSMED)사와 지난달 20일 독점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00만 달러 규모(한화 32억 원 상당)로 진행된 계약에 따라 현재 비타민하우스 제품은 관련기관의 수입 허가를 위한 등록을 진행 중이며 2/4분기 안에 태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이란, 중국 등 해외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비타민하우스는 씹어먹는 비타민C 및 종합비타민제 등 물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태국에는 DIY비타민 제품뿐만 아니라 DIY비타민 솔루션을 현지 특성에 맞게 보완 개발해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김상준 비타민하우스 총괄운영본부장은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 6.4%에 이르는 등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계약은 비타민하우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동남아 시장에 전파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국 주택매매가 11개월째 하락

전세가는 6개월째 상승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약세, 전세가격 강세' 현상이 2월에도 지속됐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전국주택 매매가격이 전달보다 0.17%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매가격은 2.10% 떨어진 것이다.

매매가격은 11개월 연속 약세를 이어갔으나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추진으로 하락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수도권은 0.36% 하락했고,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다.

인천(-0.48%), 경기(-0.36%), 서울(-0.31%), 울산(-0.16%) 등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반면 세종(0.73%), 경북(0.24%), 대구(0.21%) 등은 상승했다.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수요로 상승행진을 이어갔고, 대구와 경북은 광역전철 건설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한달간 0.22% 상승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선 1.37% 올랐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늘어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역별로 강원(-0.03%)을 제외하고 세종(1.51%), 서울(0.45%), 대전(0.45%), 대구(0.31%), 경북(0.31%), 충남(0.23%) 등 대부분 지역이 올랐다.

수도권은 소형주택 수요 증가로 0.25%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공연 보고 선물도 받고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지점장 성동욱)은 지난 1일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 치어걸 공연을 통한 하이트진로 d맥주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내 택배 어디쯤 오고 있나?

물류협회 위치조회서비스 시스템 개발 착수

주문한 택배 화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3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IT개발업체 스타클라우드9과 '택배위치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택배위치조회서비스란 택배기사의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택배위치관제시스템을 만들어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택배 화물의 실시간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택배 기사가 출발한 이후 구체적인 화물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이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택배 화물이 자신의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시시각각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고객용 위치조회 웹사이트는 물론 일반 고객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기로 했다.

스타클라우드9은 오는 6월까지 택배위치관제시스템을 개발해 택배회사들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주문 고객을 위한 조회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실시간 조회를 위한 스마트폰 앱은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스타클라우드9 관계자는 "통합물류협회와 함께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택배기업들에 무료로 공급할 방침"이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택배기사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 대형 택배기업들이 대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30% 月 220만원 못벌어

근로자 평균소득 못미쳐

자영업자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평균 한 달에 22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임 진 연구위원은 3일 '50세 이상 자영업자 증가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생계형 자영업 가구수'가 전체 459만 가구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을 연소득이 연 2609만원(월 217만원)이 안되거나, 빚을 뺀 자산이 9618만원에 못 미친 가구로 분류했다. 소득기준으로는 145만 가구, 순자산으로는 128만 가구가 이런 기준에 해당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총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817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자영업 가구 30% 이상의 소득이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에 크게 못미치는 셈이다. 더욱이 자영업 수익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건설업체 체감경기 30개월만에 최저

2월 실사지수 54.3…전달보다 11.1포인트 하락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0개월 만에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4.3으로 전달보다 11.1포인트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0년 8월 50.1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CB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2월 업체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는 대형업체 지수는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72.7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았고 중견업체 지수는 48.0으로 전달보다 18.7포인트 떨어졌다. 중견업체 지수의 낙폭은 2008년 10월 26.6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중소업체 지수는 40.0로 전달과 같지만 지수 수준 자체가 워낙 낮다.

지역별 지수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달보다 12.6포인트 떨어진 63.6으로 30개월 내 가장 낮고, 2월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방업체 지수 역시 7.2포인트 하락한 41.8로 2008년 12월 31.6 이후 가장 부진했다.

3월 CBSI 전망치는 67.1로 2월 실적치보다 12.8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 中企공제기금 담보대출 인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매출채권 청구권 담보대출 금리를 4일부터 현행 5.5%에서 4.65%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 청구권 담보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 기업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고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다. /임동률기자 exian@

로또복권 (제53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1	12	14	15	18	39	3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935,603,000	3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79,606,500	31
3	5개 숫자 일치	1,632,144	1,512
4	4개 숫자 일치	50,000	76,742
5	3개 숫자 일치	5,000	1,336,486